

미국 대학에서의 정보활용능력 제고와 대학도서관의 역할



정우섭

위스콘신주립 밀워키대학교
정보학과 교수
wjj8612@uwm.edu

최근 미국의 대학들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예산을 급격하게 줄여왔고 이에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 중의 하나가 도서관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이전에도 대학도서관들은 끊임없이 예산 부족에 시달려 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의 경제위기는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것이어서 많은 사서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실제로 필자가 있는 대학은 주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자리의 동결은 물론이고 전체 교직원의 임금을 2년 동안 3퍼센트 삭감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비정규직들은 해고를 하고 정규직들은 명예퇴직을 독려하는 형식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예산 및 지원의 대폭적인 삭감의 주된 희생양이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들이 그들 자신의 존재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야했고 이는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 바 도서관 사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미국 대학도서관들의 장서 수나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수준은 이미 상당해서 이런 면에서의 업적과시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몇몇 대학도서관들에서도 이미 실현이 된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commons)은 도서관 사용자 숫자를 늘려서 도서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편으로 많이

사용되어 온 면이 없지 않다.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도서관 1층과 같은 공간을 커피전문점과 수백 대의 컴퓨터를 포함한 모임 장소로 개조하여 수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게 함으로써 도서관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아직 장서 수로 대학도서관을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평가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도서관 본연의 임무를 제쳐두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자 숫자를 증가시킨다는 데에는 조금 씩씩한 감이 없지 않다. 더욱이 정보공유공간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존의 장서 구입비 및 데이터베이스 구입비와 경쟁관계에 있게 되기 때문에 정보공유공간이 가져오는 현실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공유공간과 더불어 미국 대학도서관들의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강조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이 개념은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이 용어는 어린 아이들의 정보활용능력 혹은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활용능력 제고에 관한 노력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 캠퍼스 차원에서 논의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개념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대학 시스템, 특히 각 단위(unit)에 대한 대학본부의 재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과의 설치, 학생 수 등 모든 것이 대학본부도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변경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은 전적으로 대학본부 혹은 각 학과에서 정할 문제들이다. 특히 각 학과는 학생 수에 따라서 예산을 분배받기 때문에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자연스레 취직이 되지 않는 학과들은 학생들이 찾지 않고 결국 그 학과들은 없어진다. 따라서 모든 학과들은 최신 경향에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미 환경관련 학과들은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상태이며 새로운 환경관련 학위들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다른 학과들에서도 서둘러 환경관련 주제들을 접목시키고 새롭게 교수들을 채용하면서 학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대학들이 어떻게 취업 시장 및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움직임들 중에서 대학도서관들과 문헌정보학과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정보활용능력수업인데 기본적으로 어느 학과에서든지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은 높여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마땅히 자신들 스스로가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모든 학과에서 이러한 정보활용능력수업에 대한 수요가 있으므로 전체 캠퍼스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를 하고 도서관이나 문헌정보학과에서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서관이나 문헌정보학과에서 먼저 나서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과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에서는 더욱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호의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도서관이나 문헌정보학과의 별로 크게 얻는 것이 없고 오히려 그 업무만 더 과중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미국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각 학과는 학생 수에 비례해 대학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학과 단위 학생 수뿐만 아니라 수업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수강하는 학생들의 숫자에 따라 그 수업을 개설하는 학과에서 대학본부로부터 받는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학과는 학생들이 많이 듣는 수업을 우선적으로 개설하고자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캠퍼스 전체에서 모든 학생들이 듣게 되는 소위 교양필수과목을 정보활용능력수업으로 개설한다는 것은 엄청난 액수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문헌정보학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문헌정보학과가 없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과대학 한 곳에서 책임을 맡고 있기에 문헌정보학과가 있든 없든 도서관의 역할을 빼 놓을 수 없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대학에서는 학과뿐만 아니라 도서관,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전산원 등 다른 캠퍼스 조직에서도 자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대학본부에서도 적극 독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들은 정보활용능력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문헌정보학과 혹은 인문대학에서 받는 수업료의 일정 부분을 자체 예산으로 흡수하려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문헌정보학과 혹은 하나의 단과대학이 수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교수인력수급에 있어서 여의치 않고 실제 도서관 사서들의 정보활용능력이 교수들의 정보능력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보활용능력수업 운영은 도서관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학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과 사이의 관계는 더욱 밀접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명실공히 윈-윈(win-win)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문헌정보학과가 없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이유로 컴퓨터 공학분야에서 이를 담당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운영이 잘 안될 뿐 아니라 도서관 사서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상당한 IT 관련 수업을 제공해 왔던 미국 문헌정보학과들은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활용능력 수업들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사실 미국 대학들에서는 교양과목 혹은 전공기초과목들에서 도서관서비스 활용을 이미 기존의 교과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포함

시키고 있었다. 디지털도서관 이전에는 물리적인 도서관의 여러 자료들을 꼭 봐야만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디지털화가 많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형태로 검색을 해야만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강의내용을 만들어 왔던 것이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자만하는 학생이라도 도서관에 가서 사서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과제를 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사서들을 초빙하여 몇 시간에 걸쳐 수업에 도서관 사용법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사용법들을 직접 가르치게 하고 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여 왔다. 또한 가장 기초적인 과목들에서부터 일반 수업시간에도 본인의 말이 아닌 것은 모두 철저히 인용을 하도록 강조를 함으로써 표절에 대해 단단히 주의를 주고 끊임없이 저작권에 대한 이슈들을 상기시켜 온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정보활용능력은 그 뿌리가 넓고 깊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필자가 논하는 정보활용능력 수업은 그 범위가 훨씬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수업에서 몇 시간 할애하여 도서관 활용법 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3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정식수업을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또한 폭넓고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된 정보활용능력수업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웹·데이터검색 뿐만 아니라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능력,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및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활용, 논리적인 글쓰기, 인용방법, 표절 금지, 저작권 문제 등 여러 가지 학문적인 기반을 닦는 기술들을 1주일에 3시간씩 16주 동안 가르치고 있다.

앞에서 필자는 정보활용능력 수업은 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과 혹은 지정된 단과대학 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실제 수업은 누가 담당하느냐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의 대학교수들은 절대적으로 한 학기에 2과목 내지 3과목 이상은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여도 교수들이 직접 이 수업들을 담당할 수는 없다. 한편 도서관에서도 기존의 서지이용교육(bibliographic instruction) 담당자들이 총동원된다고 하여도 캠퍼스 전체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실제 대규모 학부 정보활용능력 수업들은 문헌정보학과 혹은 해당 단과대학의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도서관의 담당 사서들의 지도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에서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보활용능력 교육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정보검색을 단기간에 교육하는 형태라고 한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전체 교과과정에 통합이 되는 형태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교육도 전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는 도서관교육도 그 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정보 활용능력 정식 과목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음을 주목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학부생들과 차별화되는 고급 정보활용능력 교육프로그램들을 대학원 과정에서도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있어서 인용하는 법, 표절과 저작권 문제 등은 일반 학과 수업들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에서 주도적으로 선점하여 관련 수업들을 제공할 수 있다면 미래에 캠퍼스 전체 차원에서 정보활용능력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14)